

## 하나님 아닌 누가 이런 생각을?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개역, 창세기 1:1~5]

**한** 국 사람은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어떤 한 아이만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제 정신이 아니거나 외국 아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름을 그냥 부릅니다. 친한 표시니까요. 외국 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외국에 나가서 자기 이름을 '형님'이라고 가르쳐 줬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부릅니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정상이지만 한국인이 듣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양식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조금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로는 우리나라에 파마라는 것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파마 말고 또 들은 얘기는 입술을 빨강게 발라놓으면 '쥐 잡아 먹었나?'라고 핀잔을 줬다면서요? 작은 변화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예배시간에 박수쳐 본 적이 없습니다. 기타? 태도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분도 계시대요.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떻게 예배시간에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냐? 예배시간에 어떻게 사진을 찍느냐?"고 놀라는 분도 있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는 그 옛날 당시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도 상상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은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거나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외국 아이가 여기에 왔다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 생김새가 우리와 똑같아도 행동이 다르면 한국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 옛날에,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등장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나타나는, 그것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이야기가 조지 오웰이 쓴 소설에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적어도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에 언어를 혼란시킴으로 일을 중지시키고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했다는 생각이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그런 예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아무 것도 없는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물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수 많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아무 것도 없는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외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땅을 만드셨어요? 뭘 가지고 하늘을 만드셨고 뭘 가지고 하늘의 수 많은 별들과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습니까? 해, 달, 별은 뭘로 만드셨죠? 아무 것도 없는데서 말씀으로만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창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흔히 신들이 싸움을 하다가 어떤 신이 깨어져 흘린 피가 강과 바다가 되고 튀어나온 몸뚱이는 땅과 산이 되고... 이런 식이죠. 유독 성경만은 아무 것도 없는데서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딘가 다른 데서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음직한데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조가 뭘니까? 아이들에게 창조력, 창의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창조입니까? 제철 정문에 가면 '자원은 유한, 창조는 무한' 이런 표어 있죠? 창조는 무한하데요. 뭐가 창조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창조는 남이 생각해내지 못한 특별한 생각이나, 아니면 물건의 형태를 바꾸거나 개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이 해 보지 못한 자기만의 독특한 것으로 고쳐 보는 걸 창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조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는 다른 겁니다. 단어는 같아도 내용상 전혀 다릅니다.

생명을 복제하고 생명을 만들어 낸다고 했을 때 우스갯소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생명을 창조해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 봐' 그랬답니다. 우스개입니다. 사람은 이러나저러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지금은 사라져 버렸지만 옛날에 자연발생설이라는 학설이 있었습니다. 파리, 구더기 이런 것들은 썩은 생선에서 저절로 생긴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저절로 구더기와 파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험으로 '자연발생이란 없다. 생물은 반드시 생물에서 나는 법이다'라고 증명한 사람이 파스퇴르입니다. 파스퇴르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난 이후에 자연발생설은 말도 안되는 걸로 증명됐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이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대폭발 이론이라는 것 있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뭔가 아주 밀도가 높은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터진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폭발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도 보세요. 아주 밀도 높은 뭔가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건 몰라요.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그렇게 되는 법이 없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도깨비 방망이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말해 놓고 본인들이 웃어요. 로빈슨크루소 얘기도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그가 문명사회에서 보던 것들을 섬에 표류해 있으면서 흥내를 내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 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그런 생각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경은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아무 재료도 없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이런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어쨌든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길게 잡습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눈을 떴을 때에 대강 몇 살쯤 보였을까요? 한 살짜리 갓난아기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스물이나 서른 살 정도의 청년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무래도 청년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몇 살이죠? 한국 나이로 한 살이죠. 실제로는 한 살인데 보이기엔 스물이나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겁니다.

아담이 눈을 떠 보니까 아름답리 나무들이 쪽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몇 살쯤 되는 나무죠? 그것도 한 살입니다. 어제 아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오백 년쯤 되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믿으면 실제 만들어진 나이는 한 해밖에 안되어도 보기에는 몇 백 년이 되어 보인다는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가능한한 역사를 길게 잡는데 성경은 역지로 오래 잡지 않습니다. 실제 나이와 겉보기 나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저절로 생성되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길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

화론에서 오랜 세월을 얘기하더라도 너무 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안 믿으니 창조한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속 시간을 재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애깁니다. 이걸 완전히 신화같은 얘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었든지 둘 중의 하나겠지요?

평소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잠시 봅시다. 20장 3절부터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라서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뿐이라는 생각이 사람의 머릿속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하나님은 한 분 뿐이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온갖 잡신이 들끓던 나라입니다. 태양도 신, 강물도 신, 개구리도 신, 소도 신, 뱀도 신...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민족이 형성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한 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데요? 거기도 온갖 잡신이 들끓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었다 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한 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겠느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특이해서 그랬을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잠시만 하나님께서 손을 떼어버리면 우상을 숭배하고 자연만물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말리고 말려도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려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우상숭배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자연만물을, 해, 달, 별을 숭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가지고 너희 만은 절대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혼란시키고 야단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더라는 말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제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공사 현장을 지나서 버스타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터를 닦기 위해서 불도지가 고목나무를 밀었는데 불도지가 뒤집어져서 한 사람이 죽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이튿날 죽었다." 이런 얘기를 날마다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사를 할 때 큰 나무를 함부로 베어냈습니까? 길 닦는다고 큰 나무를 함부로 베어냈습니까? 못 베어냈습니다. 그런 나무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내다가 똑바로 내지 못하고 굽게 내잖아요? 나무 때문에 휘어진 길 보셨어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경산에 길을 내면서 그 동네 노인네들이 와서 '차라리 내 목을 쳐라' 하는 바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제가 아는 한 확실히 남아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산에서 청도 가는 길에, 경산 시내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차가 양쪽으로 비껴나갑니다.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길이 좁아서 인도가 없어서 버립니다. 그 나무는 아직도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각종 나무에, 산에, 해, 달, 별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정월 초하룻날에 바닷가에 나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떠오르는 해를 보겠다고 해서 미어터집니다. 이사 가는 날, 결혼하는 날을 마음대로 정합니까? 다 물어 보고 정해주는 날에 합니다. 이사갈 때 이삿집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분이 도와준다고 차에서 아무 거나 덜렁 들고 갔다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네마다 좀 다르더라구요. 구석구석마다 신들이 있다고 믿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부처를 믿든 공자를 믿든 누굴 믿든 간에 아무라도 믿으면 좋은 거야 그러지요? 우리가 볼 때 웃기는 얘깁니다.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한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이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잡신을 섬겼는데 이게 점점점 문명화 되면서 고급스러운 신을 알게 된 거다?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럼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는 현대의 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라는 이 생각이 우리 역사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4대문명의 발상지는 전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서양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동양을 집어 삼키며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자연과학이 서양에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은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실험하면서 발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숭배한다면 절대로 자연과학이 발달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떨어져도 신이 노해서 그렇다고 하면 연구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감히 거대한 나무를 쪼개 가지고 분석하고 실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신은 한 분이시고 해, 달, 별, 자연만물들을 섬기지 말라. 오히려 그것들을 정복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자연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서양에서 자연과학이 발달한 겁니다. 천둥을 별로 겁 안 내시죠? 벤자민 클랭플린이라는 분이 천둥이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오는 날 거대한 연을 띄워 올릴 때 옆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아십니까?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띄워서 신의 노여움이 아니라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그 생각이 바뀌어 가면서 자연과학이 발달되었고 서양이 동양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해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아니 뎨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고 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안 땠는데 어떻게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럴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이 생각은 세계 공통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든지 아십니까? 아니 뎨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론은 '네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는 겁니다. 욥이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어야 벌을 받는다는 너희 말은 맞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벌을 받을만한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겪고 있으니 이해가 안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과 욥의 밑바탕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논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된 원인이 뭐니까? 욥기서 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사단이 뭐라고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지 한번 살짝 치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할 걸요' 욥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괜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는 바람에 욥이 고난을 당한 것 아닙니까?

욥이 뭘 잘못했는데요? 욥이 잘못했다기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큼 잘난 사람입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지 한번 보세요. 네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오늘 우리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욥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욥이 시련을 당한 이유입니다.

나중에 욥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고 하면 '양떼 소떼를 배로 주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욥이 받은 진정한 복은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나이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전에도 욥이 훌륭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훨씬 더 가깝게 만드시려는 의도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번 시험에 옆집에 누구는 반에서 10등했다.' 그랬더니 엄마가 '잘 했네' 그러죠! '엄마 난 8등했다.' 뭐라고 그러니까? 잘 했다 그러니까? '야, 너 좀 더 잘 할 수 없냐? 8등이 뭐냐?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야지' 애가 헛갈립니다. 10등을 잘 했다고 하면서 나는 8등인데? 왜 달라집니까? 옆집 아이는 10등을 해도 잘 했고 20등을 해도 잘한 겁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나하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해도 내 자식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과응보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자식에게는 특별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듣고 보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욥이나 욥의 친구가 그 긴긴 논쟁을 해 가면서도 이걸 생각 못했던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판기는 누르는 대로 나옵니다. 콜라 나오라고 눌렀는데 '야, 이걸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우유 마셔!' 하고 우유 나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자판기는 내가 요구한 대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판기는 아니라는 이 말의 의도가 무슨 말입니까? 콜라 나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 몸에 안 좋은 거다. 그것 말고 이것 먹어!' 하고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루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시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한 대로 들으시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를 제대로 안 들어 주신 예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까? 안 들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면 내게 유익하도록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나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원인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성경을 썼으면 이런 말을 함부로 쓰지 못했을 겁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쓰셨기에 '나는 그런 하나님, 꼭 자판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한 분이시면서 삼위가 있다는 것은 지금도 설명이 안됩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 비슷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 어떤 것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런 말이 성경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서 도무지 나올 수 없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책은 빌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돈 주고 사서 보세요. 혹시 빌려보고 감동이 되면 그 책은 돌려주고 사서 집에 갖다 두세요. 책 한 권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떤 책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녹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책이 좋은 책입니다. 한 사람이 생을 바쳐서 남긴 책 한 권을 어떻게 그냥 읽을 수 있습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책은 사서 보세요. 빌려보는 것도 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인터넷에서 남의 글을 퍼오면 표시를 하는 게 예의입니다. 처음에 쓴 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할 때 누구의 책 어느 페이지 어디 어디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람이 쓴 글도 우리가 그렇게 예우하고 대우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 글, 하나님의 독특한 생각이 담겨 있는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예우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먼지 안 타도록 잘 모셔둬요? 포장 잘 해서 아이들 손 못 대도록 잘 간직해 둬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위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닦아빠지도록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찢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아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읽으며 묵상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얻고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효자제일 교회가 조그만하고 볼품도 없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